

글쓰기 첨삭문의 텍스트적 성격과 도식 구조 분석

- 교수자 첨삭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녀* · 유혜원**

|| 차례 ||

- I. 서론
- II. 첨삭문의 텍스트적 성격
- III. 첨삭문의 도식 구조 분석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자 첨삭문의 텍스트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글쓰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첨삭 지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한계를 확인하는 한편,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제공된 학술적 에세이에 대한 교수자 2인의 첨삭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첨삭문의 텍스트로서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Eggins가 제시한 체계기능문법의 틀을 토대로 첨삭문이 텍스트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특히 맥락적 속성인 장르적 일관성과 레지스터(register) 일관성을 충족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첨삭문이 하나의 장르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첨삭문의 도식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도식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두 교수자의 첨삭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 주저자: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논의 결과 도식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고 첨삭문에 나타난 기능적 라벨(functional label)을 확인하였다. 이는 첨삭문의 도식 구조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서로 다른 형식과 내용 구성을 갖는 첨삭문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교수자가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글쓰기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수자의 첨삭문을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을 쌓아 나간다면 내용적, 형식적으로 체계화된 첨삭문의 도식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대학 글쓰기 교육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대학 글쓰기 교육, 첨삭, 첨삭문, 장르적 도식 구조, 텍스트, 체계기능문법, 레지스터

1. 서론

본고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자 첨삭문의 텍스트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대학 글쓰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첨삭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한계를 확인하는 한편,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제공된 학술적 에세이에 대한 교수자 2인의 첨삭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첨삭문’¹⁾에

1) 글쓰기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첨삭에 대한 용어는 학자들마다 상이하다. 박준범은 글의 수정 행위와 관련된 용어로 ‘퇴고, 교정, 수정, 첨삭, 논평, 피드백, 고쳐쓰기, 재고 및 조정하기, 반응’ 등이 있다고 하면서 각 용어가 가지는 특징을 정리한 바 있다(박준범,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교수자 첨삭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pp.37-45). 본고에서는 대학 교육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인 첨삭이라는 용어를 선택하되, 첨삭의 결과가 지닌 텍스트적 성격을 지칭할 때에는 ‘첨삭문’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한다. ‘논평’이

대한 새로운 관점과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쓰기 교육에서 첨삭은 매우 중요한 교육의 방법론으로 인식되어 첨삭과 첨삭 지도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첨삭의 일반론이나 첨삭 지도 모형에 대한 연구,²⁾ 첨삭에 대한 표준화 및 매뉴얼 개발에 관련된 연구,³⁾ 학습자 반응과 효능감 측정을 통해 첨삭의 효과를 제시한 연구⁴⁾ 등을 대표적인 논의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나 ‘첨삭논평’도 적절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나, 첨삭의 결과인 텍스트를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인식해야 한다는 본고의 논지를 고려했을 때 ‘논평’은 ‘논평문’, ‘비평문’ 등의 장르와 구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 박준범은 여러 용어 중 ‘첨삭논평’이 교수자가 글쓰기 학습자에게 제공한 코멘트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코멘트가 주석, 주해, 해설, 논평, 비평, 의견 등으로 번역되어 쓰인다고 하면서 적절성을 지닌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 역시 첨삭문을 하나의 텍스트로 바라볼 경우 ‘논평문’의 하위 장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학생 글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 및 조언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첨삭’이라는 용어를 쓰고, 첨삭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텍스트는 ‘첨삭문’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 2) 이은자,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첨삭 피드백-고쳐쓰기 지도 모형」, 『새국어교육』 제8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pp.279-305; 남진숙, 「글쓰기 첨삭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법」, 『사고와표현』 제6집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3, pp.117-142; 최응환,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첨삭지도」, 『교양교육연구』 제7권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pp.331-364; 변상출, 「단계별 첨삭지도를 통한 글쓰기의 실제 효용성 강화 방식에 대한 고찰-“글쓰기” 교재를 활용한 첨삭지도의 방안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47집, 한민족문화학회, 2014, pp.369-405; 김광미, 「대학생 학술적 글쓰기 첨삭 지도 연구-대학자로서 글쓰기 지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5.
- 3) 지현배·김영철, 「첨삭의 표준 문장과 첨삭 조언지 활용 사례」, 『리터러시연구』 제4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2, pp.93-116; 안미애·김영철·지현배, 「맞춤형 첨삭 매뉴얼을 활용한 표준 글쓰기 클리닉」, 『리터러시 연구』 제7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3, pp.241-267; 장동석,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의 쓰기와 첨삭 ‘표준 매뉴얼’ 일 고찰-충분대학교 <국어와작문>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제48집, 우리말학회, 2017, pp.165-191.
- 4) 이재기, 「교수 첨삭 담화의 유형과 양상 분석」, 『한민족어문학』 제57집, 한민족어

대학 글쓰기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지도 모형이 첨삭의 주체와 관련되어 학계에 보고되었으며, 첨삭의 특성상 교수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수자의 부담을 덜면서도 효과적인 첨삭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었다. 또한 첨삭에서 어떤 내용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실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글쓰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여러 대학의 사례 연구를 통해 첨삭 교육의 효과 역시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첨삭 지도를 받은 학생들 중에는 교수자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첨삭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특히 2020년 1학기과 2학기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학생 글에 대한 첨삭 및 피드백도 메일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

문학회, 2010, pp.557-597; 이재기, 「교수 첨삭 담화와 교정의 관계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제40집, 국어교육학회, 2011, pp.467-502; 지현배, 「글쓰기 첨삭지도의 실태와 수강생의 반응 분석-경북대학교 글쓰기 강좌의 경우」, 『리터러시연구』 제2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1, pp.135-163; 박상민·최선경,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첨삭지도의 실제적 효용 연구-수정 전후 글의 변화 양상 및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16집, 한국작문학회, 2012, pp.171-197; 김경화, 「중등 국어 교사의 학생 글 논평에 대한 인식과 논평 양상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4; 김정자, 「학생의 글에 대한 교사 반응 사례 연구」, 『작문연구』 제26집, 한국작문학회, 2015, pp.143-176; 박준범, 「글쓰기 학습자의 첨삭논평 수용 양상에 관한 고찰」, 『교양교육연구』 제8권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pp.271-305; 박준범,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교수자 첨삭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17; 이다은, 「쓰기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강화 및 실제적 문제 개선을 위한 교수자 피드백 방법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64집, 우리어문학회, 2019, pp.359-385.

의 수준과 교육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면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존 첨삭과 같은 형태로 정보가 나열되거나 파편화되어 제공된다면 학생들에게 교수자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수자의 첨삭문 역시 학생 글과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지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첨삭을 단순히 교수자가 학생 글에 대해 평가하고 지시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로 국한하기보다 첨삭의 결과로 생성되는 첨삭문이 전달력 높은 텍스트적 속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첨삭 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첨삭의 내용이 체제로 구성되기보다는 항목화되어 제시되었고, 실제 학생들에게 첨삭이 제공되는 방식도 나열된 정보 전달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글쓰기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고, 이를 토대로 첨삭 지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상희는 ‘모든 글쓰기 활동은 독자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하며 대화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⁵⁾ 김광미는 첨삭 지도에서 글쓰기 지도자는 학생 필자에게 독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조언하고 대화함으로써, 학생 필자가 독자들이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⁶⁾ 즉 교수의 첨삭을 하나의 담화로 보고, 교수자의 역할을 제임스 코르스화이트의 용어⁷⁾처럼 청중-조

5) 김상희, 「논증적 글쓰기의 수사학적 접근-에토스와 파토스의 표현 기술을 중심으로」, 『수사학』 제14집, 한국수사학회, 2011, p.41.

6) 김광미, 앞의 논문, p.5.

7) 제임스 코르스화이트, 오형엽 역, 『이성의 수사학-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p.158.

정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참여자-대담자로 규정하자는 관점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된다.⁸⁾ 이처럼 첨삭을 담화로 인식하는 것은 첨삭이 소통이 전제된 단계적 행위여야 한다는 것,⁹⁾ 그리고 지면 첨삭, 대면 첨삭 등의 다양한 첨삭 방법을 통해 첨삭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적 함의가 있다. 이때 첨삭 지도의 결과로 생성된 첨삭문은 정보의 나열이 아닌 하나의 텍스트로 기능해야 그 교육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첨삭문이 지니는 텍스트적 성격을 규명하고, 실제 교수자의 첨삭 사례를 분석하여 첨삭문의 구조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학기과 2학기에 진행된 <대학글쓰기> 강좌에서 이루어진 두 교수자의 첨삭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두 교수자 모두 같은 학교에서 동일 교과를 수년간 진행해 왔고, 수업 운영 방식이나 과제 제시 방법 등 큰 틀에 대한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첨삭 자료가 수집되었다. 학생들이 과제로 수행한 글쓰기는 학술적 에세이로, 형식적, 내용적, 윤리적 요건을 갖춘 글이다. 과제에 대한 첨삭은 두 차례 진행되었다. 1차 첨삭은 개요 첨삭이다. 학생들은 과제의 조건에 맞게 제목, 주제, 글의 구성별 내용, 참고자료 등이 포함된 개요를 제출하고,

8) 이은자는 첨삭 피드백을 독자와 필자의 능동적 상호 소통 과정으로 바라보았으며 (앞의 논문(2010), pp.281-283), 이제기는 교수 첨삭이 협력적이고 대화적이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앞의 논문(2011), p.495).

9) 주지하다시피 학생은 자신이 작성한 글을 제출한 후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글을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는다. 이때 학생의 글에 대한 교수자의 첨삭과 교수자의 첨삭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적용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교육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수자와 학생은 상호적 소통 관계이며, 교수자의 첨삭은 학생이 요구 또는 기대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전달되어야 효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수자 첨삭을 받은 후 완성 글을 제출한다. 이후 두 교수자는 학생의 완성 글에 대한 2차 첨삭을 진행한다.¹⁰⁾ 첨삭문의 좀 더 엄밀한 비교를 위해 각 교수자가 2020년 1학기과 2학기에 진행한 <대학 글쓰기> 강좌 두 개씩을 선정하고, 비슷한 계열의 분반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분반 현황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 분반 현황 및 인원〉

		교수자A		교수자B	
2020년 1학기	사회대	33명	인문대	30명	
	경영대	30명	경영대	36명	
2020년 2학기	공대(전기전자)	30명	공대(고분자 화공)	31명	
	공대(소프트웨어)	35명	공대(건축)	30명	

이처럼 두 명의 교수자의 첨삭문을 분석하는 이유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이다. 오랜 기간 글쓰기 교육을 하면서 교수자의 개인적 특성이 첨삭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교수자의 전공 및 학문적 배경 등에 따라 첨삭의 내용이나 스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첨삭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¹¹⁾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인 첨삭에서 제시된 내용을 분류하여 빈도 분

10) 단계적으로 첨삭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어문규범과 표현 위주의 첨삭에서 벗어나 글의 내용이나 구성 등에 대한 첨삭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1) 두 교수자 모두 같은 대학에서 10년 이상 글쓰기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수자 A의 전공은 고전산문이고, 교수자 B의 전공은 국어문법론이다. 두 교수자의 첨삭문에 드러난 장단점을 토대로 형식과 내용을 보완하고, 향후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축적해 나간다면 하나의 텍스트로서 첨삭문의 구성 요소를 정교하게 체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수자가 제시한 첨삭문을 하나의 텍스트로 바라보고, 그것이 어떤 구성, 형식, 내용의 특징을 지니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이 되는 첨삭문의 내용 중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첨삭문의 텍스트적 성격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1차 개요 첨삭문과 2차 완성 글 첨삭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토대로 첨삭문의 도식 구조가 지니는 특징을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첨삭문의 텍스트적 성격

Eggs에 따르면 텍스트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실질적 산물’로서 언어학에서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를 형성하는 구어나 문어의 구절(passage)을 일컫는다.¹²⁾ 따라서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된 전체’를 구성하는 맥락적 속성인 일관성(coherence)과 텍스트 내적 속성인 응집성(cohesion)을 통해 조화(texture)를 이루어야 한다. 첨삭 행위의 산물인 첨삭문이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고, 특히 맥락적 속성인 일관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르적 일관성과 레지스터(register)의 일관성을 충족해야 한다.¹³⁾ 이 장에서는 첨삭문이 가지는 텍스트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

12) Eggs,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Continuum, 2011, p.23.

13) 텍스트의 성립 요건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Beaugrande & Dressler에 따르면 텍스트의 성립 요건은 ‘응집성, 결속성, 의도성, 수용성, 정보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의 일곱 가지이다(Beaugrande & Dressler,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gman, 1981). 본고가 채택한 체계기능문법에서의 텍스트 성립 요건은 용어는

선 레지스터 일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에 장르적 일관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첨삭문의 레지스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Eggins가 논의한 필드(field), 테너(tonor), 모드(mode)라고 하는 레지스터 변인(register variables)을 분석해야 한다.¹⁴⁾ 여기에서 필드는 ‘무엇에 대해 말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이고, 모드는 ‘상호작용 속에서의 언어가 하는 역할’이며, 테너는 ‘상호작용 참여자들 사이의 역할 관계’를 뜻한다. 첨삭문의 필드는 ‘학생 글에 대한 조언 및 수정 지시’¹⁵⁾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모드는 지면 첨삭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문어적 속성을 갖지만 첨삭이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에 영향을 받아 그 특성이 다소 가변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공간적 거리와 대인 관계적 거리 척도에서 첨삭문은 전형적인 문어에 해당하는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호적 소통을 전제한 텍스트라는 특성을 갖는다.¹⁶⁾ 특히 텍스트 전

다르나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응집성과 결속성은 체계기능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적 장치와 관련이 있으며, 의도성, 수용성, 정보성은 필드와 관련되어 있고, 상황성과 상호텍스트성은 모드, 테너와 관련된다. 따라서 체계기능문법에서의 텍스트 성립 요건이 기왕의 논의 방식과 유리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 다만 체계기능문법의 방법론이 좀 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틀을 제공하고 있기에 이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 상식으로 인식되는 장르 범위를 넘어, 레시피 장르, 증명서 등과 같은 좀 더 넓은 범위의 텍스트를 장르로 포괄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첨삭문의 장르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언어적 표현 분석이 추가 되는 응집성과 결속성에 대해서는 이후의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14) Eggins, *op. cit.*, p.90. 레지스터(Register)는 사용역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체계기능문법의 대표적 용어이다. 텍스트에 표현된 언어를 통해 우리가 특정한 상황을 식별할 수 있을 때 레지스터적 일관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15) 대부분의 교수자가 첨삭 과정에서 학생 글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평가와 첨삭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첨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척도 기준의 점수 평가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이 다소 지연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호 소통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험적 거리 척도에서 침삭문의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지시, 조언, 평가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침삭문은 문어(written language)적 성격을 갖지만 지연된 피드백과 반응을 전제한 소통적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 테너는 ‘교수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공적이고 다소 격식적인 성격의 글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그런 까닭에 매우 격식적인 언어 형태가 구사되기도 하지만 교수자에 따라서는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친숙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테너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침삭문의 언어 표현이나 내용 구성은 정돈되고 전달력이 높고 교육적이어야 한다.¹⁷⁾

이러한 레지스터적 속성은 침삭을 진행하는 교수자들이 대체로 직관

16) Eggins는 모드 분석을 위해 Martin(1984)의 도식에 따라 공간적, 대인 관계적 거리와 경험적 거리를 척도로 분석하고 있다. 경험적, 대인 관계적 거리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대면 상황을 한쪽 끝에 배치하고 소설을 다른 쪽에 배치하여 각 레지스터의 모드 척도를 보여주고 있다(Eggins, *op. cit.*, pp.90-91). 이러한 척도에서 침삭문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교적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이메일 정도의 레지스터적 특징을 갖는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 이메일을 통한 학생과의 소통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침삭문의 모드적 특징이 좀 더 분명해진다.

17) 기존의 침삭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실제 침삭의 과정에서는 시간의 압박과 업무량 때문에 침삭문이 레지스터의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학 글쓰기 수업의 수강 인원은 적게는 30명 전후에서 많게는 60명 전후라고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침삭문이 정돈되고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장동석, 앞의 논문(2017), p.168). 그러나 글쓰기 교육에서 침삭 교육의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연구가 지향하고 있는 침삭문의 기본적 성격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 이러한 연구가 대학의 글쓰기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적,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텍스트의 모드와 테너의 실현 방식이 교수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첨삭문이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의 일관성은 교수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다.¹⁸⁾ 문제는 첨삭문이 장르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Eggins에 따르면 체계기능문법적 관점에서 장르는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화자들이 참여하는 연출된 목적 지향적 활동’이며, ‘언어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완성되는 방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¹⁹⁾ 첨삭문은 강의, 리포트/에세이 작성, 세미나, 관찰 기록, 교과서 집필과 같은 분류에 속하는 교육적 장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장르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터 형상이나 텍스트의 도식적 구조, 텍스트 내에서 언어적으로 실현된 패턴 등을 분석해야 한다. 레지스터의 형상은 위에서 분석한 첨삭문의 필드, 모드, 테너의 분석이다. 문제는 첨삭문의 도식 구조(schematic structure)이다. 첨삭문의 도식 구조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첨삭문을 이루는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첨삭문의 내용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평가 기준과 관련이 있다.²⁰⁾ 지현배에 따르면 대

18) 박준범은 Straub(2000)의 논의에 기반하여 첨삭논평의 구분 기준을 초점(focus)과 방식(mode)으로 나누고 초점에 수사적 맥락, 조직, 내용, 표현의 정확성을 배치하고, 방식에는 닫힌질문, 열린질문, 교정, 지시, 충고/제안, 비판, 완화된 비판, 독자 반응, 칭찬을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초점은 체계기능문법 분류에 따르면 필드(field)에 해당하며, 방식(mode)은 모드, 즉 구체적인 언어 표현의 기능에 해당한다. 박준범, 앞의 논문(2017), p.50.

19) Eggins, *op. cit.*, pp.55-56.

20) 글쓰기 교수자들 중에는 첨삭 조언지나 첨삭 평가표와 같이 평가 기준을 항목화하여 척도 평가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지현배·김영철이 제시한 간결성, 정확성, 객관성, 규범성, 일관성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게 하는 방식과 주장의

학 글쓰기 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수자들의 첨삭 내용은 어휘 규범과 문장 규범이 중심이었으나, 학생들의 첨삭 희망 순위는 1순위가 글의 구성과 논리, 2순위가 독창성, 3순위가 문장 수준, 4순위가 어휘 수준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¹⁾ 이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첨삭은 단순히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자신 글의 구성과 논리를 개선하고 글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술적 글쓰기의 첨삭 지도 내용의 거의 모든 것을 정리한 김광미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논자는 교수자가 조교에게 첨삭 지도를 의뢰할 때 제공한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표는 대분류, 중분류 질문 항목, 소분류 질문 항목, 기능과 특징을 각 단계로 나누어 만든 것이다.²²⁾ 대분류에서는 주제 및 서론, 본론과 내용, 결론, 표현, 형식으로 나누고, 각각의 항목에 제목, 주제, 글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의 통일성, 정당성, 완결성, 긴밀성, 반론 수용 반박, 일관성을 비롯한 형식적 요소들을 배치하였다. 첨삭문의 내용에 이러한 평가 기준과 좋은 글을 판별하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 내용이 하나의 첨삭문에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첨삭 교육의 장점이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을

구체성, 근거의 적절성, 맥락의 논리성, 내용의 진실성, 표현의 창의성, 독서의 효용성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게 하는 방식의 첨삭 조언지를 참고할 수 있다(앞의 논문, pp.115-116). 그러나 이러한 척도 위주의 평가 방식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효과는 있으나 이것이 자신의 글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위주의 첨삭에서 벗어나 교수자가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가독성이 높은 텍스트로서의 첨삭문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1) 지현배, 앞의 논문(2011), p.136; pp.148-149; p.152.

22) 표의 구체적인 모습은 해당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광미, 앞의 논문, pp.32-34.

감안한다면 첨삭문의 내용이 학생의 글에 맞게 교수자의 판단 하에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첨삭문이 지니는 하나의 장르적 성격이 될 수 있다.

첨삭문에 들어갈 또 하나의 내용은 박준범이 방식(mode)으로 제시한 ‘지시, 충고/제안, 비판, 완화된 비판, 독자 반응, 칭찬’ 등이다.²³⁾ 대체로 이러한 종류의 내용은 학생 글 말미에 ‘총평’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용들은 학생 글을 첨삭한 교수자의 첨삭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첨삭문은 글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지시와 방식(mode)에 해당하는 내용이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첨삭문의 내용이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한계는 이러한 내용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나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첨삭을 교수자의 교육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첨삭이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 첨삭 연구의 방점이 효율성에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달력이 높은 하나의 텍스트로 첨삭문을 구성하려면 교수자가 제공하는 첨삭문이 어떤 도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여러 연구자와 교육자의 후속 연구를 통해 대학 글쓰기 교육에 적절한 도식 구조를 찾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첨삭문의 기본적 도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두 교수자의 첨삭문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

23) 박준범, 앞의 논문(2017), p.59.

러한 분석 작업은 글쓰기 교육에서 첨삭문이 전달력 높은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III. 첨삭문의 도식 구조 분석

본 연구를 위해 분석 대상으로 삼은 첨삭문은 두 명의 교수자가 작성한 것으로 1차 개요 첨삭과 2차 완성 글 첨삭으로 이루어져 있다. 1차 개요 첨삭에서는 제목과 주제, 글의 구성과 논리성, 자료의 선별 등이 주로 첨삭의 내용이 되고, 2차 완성 글의 첨삭에서는 글을 구성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두 교수자의 첨삭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검토하여 도식 구조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개요 첨삭 분석

두 교수자의 개요 첨삭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공통점은 지엽적인 부분은 학생 글에 ‘메모[교정 도구]를 삽입하여 수정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고,²⁴⁾ 글 말미에 총평에서 많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⁵⁾ 교수자 B는 하나 혹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교수자가 전달하

24) 학생 글 안에 메모의 형태로 제시한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총평에서 다시 정리되고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첨삭문이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어, 첨삭문 장르의 종합적 성격을 규명하는 단계에서는 학생 글 안에 제시되는 코멘트나 수정 방향의 성격 등도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고의 초점이 첨삭문의 도식 구조 분석에 있으므로 총평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25) 두 교수자의 이러한 첨삭 방식 때문에 첨삭문을 텍스트로 이해하고 전달력 높은

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였으나, 교수자 A의 경우 학생들에게 통일된 형식으로 내용 요소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체계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교수자 B의 첨삭보다는 교수자 A의 첨삭이 좀 더 가독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교수자 A의 개요 첨삭 예시

ㄱ. <피드백>

- ▶ 제목: ○○ 학생이 질문의 해답으로 생각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독자의 호기심을 끌 만한 제목을 고민해 보세요.
- ▶ 주제문: 주장이 명확히 표현되었네요.
- ▶ 본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이라는 관점을 서론에서 제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서술하였네요.
- 서론 부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가 문제 제기 형태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왜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지, 이러한 가치를 논의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등이 부각되면 좋겠네요.
- 행복에 대한 ○○ 학생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을 지닌 독자에게 ○○ 학생의 견해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행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대다수의 독자가 보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 학생의 견해를 좀 더 독창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우리가 왜 고민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나 태도 등에 대한 ○○ 학생의 견해도 글에 포함되면 좋겠네요.

텍스트로 첨삭문을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첨삭은 많은 교수자들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므로 이 연구의 교육적 효용성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전문가(학자/철학자)의 견해, 통계자료, 사례(경험) 등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논지를 전개하면 논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피드백>

- ▶ 제목: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면서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목은 너무 범박하고 평이합니다.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참신한 제목이 필요합니다.
- ▶ 주제문: 주요 논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바랍니다.
- ▶ 본문 -주장에는 ‘논쟁점’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학벌을 우선시하는 사회 시스템, 학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학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서술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 학생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 학생의 견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 본론의 첫 번째 항목(2)에서 사회 시스템적인 면에서 학벌을 우선시한다고 했는데, 하위 항목에서는 교육 부분만을 언급하였네요. 논거가 부족합니다. 사회 시스템을 문제 삼자면 교육 시스템 외에 정치, 경제 시스템을 함께 다루거나, 사례로써 다룬다면 교육 외에 취업, 승진 등에서 학벌이 우선시되는 상황들을 함께 거론해야 하지 않을까요?
-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가 사라지려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 학생의 구체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야 ‘논쟁점’이 포함된 주장이 나올 듯합니다.
-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학자/철학자의 주장, 통계자료, 구체적 사례 등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논지를 전개하면 논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수자 B의 개요 첨삭 예시

ㄱ. 총평: 개요를 아주 열심히 잘 써 주었습니다. 고민도 정말 많이 한 것 같고 자신의 생각도 많이 정립한 것 같습니다. 이 개요대로 글을 쓰되, 자

료가 글을 지배하지 않도록 자신의 목소리가 글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글을 구성해 보기 바랍니다. 주장을 앞에 두고,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단락 구성을 하면 글의 전달력을 높이면서 ○○ 학생의 개성과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제인 만큼 자신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글을 작성해 보세요. 좋은 글 기대합니다.

ㄴ. 총평: 주제와 서론 본론1의 후반부 내용은 이 글이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론2와 본론3은 다시 이런 주제와 관련 없이 일반적인 내용이 된 듯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본론 구성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서론에서 인간은 나약함 때문에 종교를 찾고 그것이 일정 정도 인간에게 효과적인 일 수 있지만, 과연 이런 위안이 대가가 없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본론1에서는 우리가 종교를 가지게 되면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구체화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 학생이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것이 ○○ 학생의 생각과 다르다면 현재 주제에 집중해서 단순히 순기능 역기능의 진술이 아니라 주장의 근거로 본론이 구성되도록 수정 방안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 기대합니다.²⁶⁾

(1)의 첨삭은 학생의 개요가 구성된 순서에 따라 ‘제목 첨삭-주제 첨삭-본문 내용 첨삭-조언’의 순으로 내용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2)의 첨삭은 교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할 경우 학생들이 그 내용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내용 구성 면에서 살펴보면 (1)의 경우, ‘본문 내용 첨삭’이 대체로

26) (1)은 교수자 A, (2)는 교수자 B의 첨삭 내용이다. 공통적으로 ㄱ은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의 글을, ㄴ은 수정 및 지시 사항이 많은 글을 각각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학생 글에 대한 내용 요약-평가(공감)-수정 지시’의 구성을 지키면서 글쓰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방식으로 첨삭문을 기술하고 있다. 즉 교수자 A는 학술적 에세이가 갖춰야 할 형식적, 내용적, 윤리적 요건을 학생들과 공유한 상황에서 학생 글에 충족된 부분과 결여된 부분을 평가하여 수정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피드백> 내용을 보면 교수자 A는 제목의 참신성, 주장의 명확성, 내용의 창의성, 구성의 논리성 등을 준거로 학생 글에 대한 첨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 기준은 학생들에게 공지되고 수업 시간에도 강조한 것이기에 학생들은 교수자의 첨삭이 무엇에 근거한 평가이고, 수정 지시 사항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첨삭 내용 구성은 학술적 에세이와 같은 논리적 성격의 글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지만, 대학 글쓰기 수업을 듣는 학생의 글에 대한 첨삭문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구조화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2)의 경우 교수자 B는 제목과 주제에 대한 내용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개요에 메모를 달아 제시하고, 총평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총평으로 제시된 첨삭의 내용은 주로 구성과 본론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교수자가 강조하고 싶은 바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1)의 경우 주제 선정과 자료 수집 등이 비교적 잘 된 개요인데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을 지적함으로써 전달력 높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식상해지기 쉬운 주제에 독창성을 발휘하라는 조언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개요 자체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보다 글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고려해야 할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2-2)의 경우 교수자가 제시한 조언은 좀 더 직접적이다. 이 개요는 주제는 적절하나 본론에서 이 주제를 충분히 담지 못

한 경우이다. 따라서 본론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첨삭을 진행한 교수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인지 학생의 의도와 교수자의 조언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생각이 다를 경우의 지시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1)과 (2)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교수자의 첨삭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상이하다.

(3) ㄱ.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전문가(학자/철학자)의 견해, 통계자료, 사례(경험) 등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논지를 전개하면 논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ㄴ. 좋은 글 기대합니다.

(3ㄱ)은 교수자 A의 첨삭에서 주로 반복되는 내용이고, (3ㄴ)은 교수자 B의 첨삭에서 반복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첨삭 내용을 통해 교수자의 교수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수자 A의 경우 수업 내용과 글쓰기 활동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교수자 B의 경우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학생들이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수자 A의 전략은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반면, 교수자 B의 전략은 글쓰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첨삭문의 도식 구조를 체계기능문법의 방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ㄱ. (1ㄱ)의 도식 구조: (제목에 대한) 지시>주제 평가>주제 정리>(서론에 대한) 지시>공감>(질문1>일반인의 전체 제시>질문2)>지시>조언>논증 강화 방법 전달

ㄴ. (1ㄴ)의 도식 구조: ((제목에 대한) 지시>제목 평가>제목 조언)>(주제 조언>주제에 대한 일반적 특징 제시>주제 지시>지시의 구체화)>본론 내용 정리>문제 제기>조언>논증 강화 방법 전달

ㄷ. (2ㄱ)의 도식 구조: 평가(칭찬)>칭찬의 근거>지시>지시 사항의 구체화>우려 사항 제시>지시>격려

ㄹ. (2ㄴ)의 도식 구조: 평가(칭찬)>문제제시>조언(해결 방안 제시)>(서론 구성에 대한) 조언1>(본론 내용에 대한) 조언2>(본론 내용에 대한) 조언3>가정 상황 제시>대안적 조언 제시>격려

첨삭문에 대한 이러한 도식을 통해 ‘평가’, ‘지시’, ‘조언’이 첨삭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능적 라벨(functional label)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²⁷⁾ 구체적인 첨삭문의 도식 구조는 매우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의 첨삭문에서는 학생 글의 장점에 대해 평가가 ‘칭찬’의 형태로 제시되는 반면, (1)의 첨삭문에서는 학생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형태로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내용의 구체성 면에서 (1)의 첨삭이 가지는 장점이 많으나, 글쓰기가 어려운 과정이고 글쓰기 교육에서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2)의 첨삭이 갖는 장점도 고려될 만하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본고의 분석 대상 자료는 1차 개요 첨삭과

27) 기능적 라벨(functional label)은 체계기능문법에서 장르를 나누는 기능적 기준에 따른 용어이다. 장르를 이루는 텍스트 구조는 기능을 중심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데, 텍스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능을 표시한 결과를 기능적 라벨이라고 한다. 즉 장르의 도식 구조 분석은 어떤 기능적 라벨들이 어떤 순서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2차 완성 글에 대한 첨삭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요 첨삭에 서는 글의 주제 및 구성을 비롯한 내용에 대한 조언 및 지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첨삭이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공되면서 기존의 첨삭 교육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어휘 수준이나 문법 수준 첨삭을 넘어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첨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개요 첨삭을 토대로 작성된 학생의 완성 글에 대한 첨삭문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완성 글 첨삭 분석

완성 글 첨삭문의 형식적 특징은 오류가 많거나 보완할 점이 많은 글 일수록 학생의 글 중에 메모 형태로 제공되는 지시나 수정 사항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교수자 A와 B 모두 맞춤법, 띄어쓰기, 단락 구분, 주석 형식 등의 오류, 어색한 표현에 대한 사항은 학생 글에 직접 수정하거나 메모를 다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교수자 A의 경우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직접 수정해 주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후 글의 말미에 <첨삭 사항>에서 오류 교정의 이유를 글쓰기 원칙이나 규범에 근거해 보충 설명하기도 하였다. 반면 교수자 B는 한글이나 워드의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오류를 수정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일 오류는 학생 스스로 바로잡도록 수정 지시를 하고 있다. 완성 글에 대한 첨삭에서 형식상 나타나는 공통점은 학술적 글쓰기의 형식적, 윤리적 요건이나 어문규범에 관한 사항은 학생 글의 본문 중에 직접 수정하거나 메모를 다는 방식으로 수정을 권고한 반면,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사항은 첨삭의 말미에 ‘총평’의 형

태로 제시하고 있다.²⁸⁾ 다음은 완성 글에 대한 교수자 A, B의 총평 예시이다.²⁹⁾

(5) 교수자 A의 완성 글 첨삭 예시

ㄱ. <피드백>

1.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행복’으로 보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서술하였네요.
 2.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게 된 계기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였으며, 논지가 자연스럽게 전개되어 필자의 주장에 공감하며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 논지 전개에 필요한 자료 등을 활용하였는데, 주석을 통해 그 출처를 정확히 제시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 ○○ 학생은 문장 표현력이나 글 구성력이 모두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쓰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삭 사항>

- 편집할 때 ‘문단 모양’에서 단락 들여쓰기 기능을 익혀 두면 편리합니다.
- 붉은색 표시는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한 것입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ㄴ. <피드백>

1.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에서 살피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네요.
2. 논점이 명확하고 논지가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 학생의 주장에 공감

28) 교수자 A의 첨삭에서는 <피드백>과 <첨삭 사항>이 모두 ‘총평’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피드백> 항목에서 언급하였다.

29) 개요 첨삭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학생 글에 대한 첨삭을 각각 제시하였다. 개요 첨삭과 완성 글 첨삭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개요의 수준과 완성 글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요 첨삭에서 (1ㄱ)와 (1ㄴ)은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실제 완성 글에서는 둘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며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도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네요.

3. 논지 전개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주석을 통해 출처를 정확히 명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의 예시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출처 제시도 필요해 보입니다.
- ○○ 학생은 글 구성력이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첨삭 사항>

1. 출처를 제시할 때, 표제어, 신문기사, 논문 등은 「 」 표시를, 책이나 저널, 신문 등은 『 』 표시를 합니다.
2. 인문 계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석 번호를 인용 문장 뒤에 붙입니다.
3. 한 단락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게 적절히 나누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단락의 길이는 5~6문장 정도입니다.
4. 글을 다 쓴 후 띄어쓰기 교정을 꼼꼼히 보면 좋겠네요. 조사는 붙여 쓰고, 복합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6) 교수자 B의 완성 글 첨삭 예시

ㄱ. 총평 : ○○ 학생의 글은 표현력도 뛰어나고 논리적 전개도 뛰어납니다. 아주 우수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에게 ○○ 학생의 생각을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대안 제시 역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글을 좀 더 다듬어 좋은 글이 될 수 있도록 ○○ 학생의 독창성을 발휘해 보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ㄴ. 총평 : ○○ 학생은 문장 표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수행에 비해 이 글이 다소 아쉬운 것은 너무 평이한 수준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주제를 너무 넓게 잡아서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이버 종교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이 지점에서 누가,

사이비 종교에 왜 빠지는가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따라서 종교의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공통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글을 수정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수정 글은 이처럼 화제와 주제를 좁혀서 써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교수자의 첨삭문 역시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우선 교수자 A의 경우 전체 글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지시는 <피드백>에서 전달하고, 출처 제시, 단락 구분, 맞춤법 등과 같은 글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 지시는 <첨삭 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다. <첨삭 사항>의 내용은 학생 글의 본문 중에 나타난 오류를 교수자가 직접 교정해 준 근거 및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교수자 B의 경우 2차 첨삭에서도 하나의 단락 혹은 그 이상의 단락으로 교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학생 글에서 어문규범을 비롯한 형식적 오류는 메모로 전달하였기에 교수자 A처럼 특정 오류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보충 설명한 부분은 없다. 개요 첨삭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가독성을 높이고 학생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락 단위로 정보를 기술하기보다는 내용 요소, 형식 요소별로 분류하여 첨삭문의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학생과의 소통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완성 글에 대한 첨삭도 각 교수자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교수자 A의 경우 학생 글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조언을 하고 있는 반면, 교수자 B는 이러한 과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지시 사항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위의 첨삭문을

도식 구조로 표현했을 때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7) ㄱ. (5ㄱ)의 도식 구조: <피드백> 1. (학생 글) 내용 정리 > 장점 제시(칭찬) -> 공감 > 수정 사항 지시 > 칭찬 격려 / <첨삭 사항> 1~2. 정보 전달

ㄴ. (5ㄴ)의 도식 구조: <피드백> 1. (학생 글) 내용 정리 > 장점 제시(칭찬) -> 공감 > 장점 제시 > 수정 사항 지시 > 칭찬, 격려 / <첨삭 사항> 1~4. 정보 전달

ㄷ. (6ㄱ)의 도식 구조: 장점 제시(칭찬) > 조언1 > 조언1의 구체화 > 조언2 > 추가 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 > 격려

ㄹ. (6ㄴ)의 도식 구조: 장점 제시(칭찬) > 문제 제시 > 원인 제시 > 해결 방안 제시 > 조언 > 내용에 대한 구체적 조언 > 수정 방향 제시 > 추가 상담을 위한 안내 > 격려

교수자 A의 도식 구조를 보면 첨삭문의 체계성이 높고 교수자 나름의 도식 구조가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자 B의 도식 구조는 학습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처음과 끝이 칭찬에서 시작해서 격려로 끝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문제 상황을 주고 조언이나 수정 사항을 지시할 때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인용문 (5)에 제시된 교수자 A의 첨삭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학생의 글은 개요에서는 수준 차가 있었으나 완성 글에서는 두 글 모두 비교적 잘 쓴 글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교수자 B의 첨삭문 내용처럼 구체적인 수정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자 A의 완성 글 첨삭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지시 사항이 많은 첨삭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교수자 A의 완성 글 첨삭 사례

<피드백>

1.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예시로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 도덕적인 것 등을 열거하고, 이들은 ‘추상적인 것’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또한 ‘추상적인 것’의 본질은 진정성이라고 서술하였네요.
 2. 전달하고자 하는 논지는 이해하였으나 서술 중 불필요한 내용도 보이고, 장황하게 기술된 단락도 있네요. 자본주의 시장 원리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 부분, 마이클 샌델의 책에 소개된 상황이나 사례를 길게 인용한 부분은 ○○ 학생의 논점을 오히려 흐리게 만드네요. 샌델의 논리를 요약 정리하는 글이 아닌 이상 인용은 핵심만 간략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마지막 단락에서 ‘추상적인 것’의 본질인 진정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전 단락에서는 추상적이지 않은 것들도 도덕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덕성이 추상적인 것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낸다는 것인가요?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도덕성은 뭘까요?
 4. 본질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소 소략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하면 좋지 않을까요? 독자들도 사실 앞의 내용보다는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을까 합니다.
-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단락 간 유기성에도 좀 더 유의하면 앞으로 좋은 글을 많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삭 사항>

1. 편집할 때 ‘문단 모양’에서 단락 들여쓰기 기능을 익혀 두면 편리합니다.
2. 단락이 너무 길면 독자가 필자의 논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 단락이 너무 길지 않게 적절히 나누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단락의 길이는 5~6문장 정도입니다.

3. 마지막 단락: 본문의 밑줄 친 부분의 문장들은 좀 더 간결하게 다듬기 바랍니다.
4. 띄어쓰기 오류가 많이 보이네요. 조사나 어미는 붙여 쓰고, 복합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붉은색 표시는 수정한 내용입니다. 수정 전 후를 비교해 앞으로 작성하는 글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9) (8)의 도식 구조

<피드백> 1. (학생 글) 내용 정리 > 2. 평가(이해) -> 문제 제시1 -> 문제 제시2 -> 수정 방향 지시 > 3. (학생글) 내용 정리 > 문제 제기(개방형 질문) > 4. 장점 제시 > 유의 사항 전달 > 격려 / <첨삭 사항> 1~2. 일반적 정보 전달 3. 구체적 정보 전달 4. 일반적 정보 전달

위의 첨삭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교수자 A는 첨삭문 총평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밑줄 친 부분에서와 같이 문제를 제시하고 수정 방향을 지시하는 부분, 그리고 학생 글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보게끔 유도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첨삭문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개요 첨삭에서 제시했던 방법을 따르고 있다.³⁰⁾

위의 도식 구조 분석을 통해 첨삭문의 기능적 라벨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10) ㄱ. 평가(칭찬, 아쉬운 점 제시), 격려, 공감, 수정을 위한 지시, 조언³¹⁾

30) 두 교수자의 2차 첨삭문에 수정 지시 사항이 많이 포함된 경우는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교수자의 1차 첨삭문이 학생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1차 개요 첨삭이 글을 수정, 보완하려는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이유는 첨삭문의 내용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검토 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31) 지시와 조언은 구체성과 관련하여 구분될 수 있다. 지시는 비교적 좁은 범위의 문

- ㄴ. 문제 제시, 문제의 원인 제시, 근거 제시, 우려 사항 제시, 가정 상황 제시, 해결책의 방향 지시, 대안 지시
- ㄷ. 학생 글에 대한 내용 정리, 정보 전달

이러한 기능적 라벨들은 첨삭문의 도식 구조를 체계화하는 기본 정보로 유용하다. (10ㄱ)은 교육적 효과를 위해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언어적 표현에 해당하고, (10ㄴ)은 첨삭문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구성이며, (10ㄷ)은 교수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첨삭문의 구성 요소이다. 물론 제시한 정보 외에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나 내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교수자 첨삭문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위의 기능적 라벨은 좀 더 확장되고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첨삭문의 도식 구조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할 만하다.

두 교수자의 첨삭문에 나타난 기능적 요소들을 분석,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도식 구조만으로 첨삭문의 형식적, 내용적 구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들 첨삭문이 지니는 의미와 효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첨삭문의 장르적 도식 구조를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교수자의 첨삭문을 비교하면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차이는 교수자 A는 수정 사항을 지시할 때 개방형 질문 형태로 제시하거나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교수자 B는 A에 비해 좀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지시 사항이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교수자 A와 B가 체계화하고 있는 도식 구조와 첨삭에서 교수자가

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조언은 방향성과 관련하여 교수자가 제공하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첨삭문에 나타난 도식 구조의 특징, 언어적 표현의 특징 등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분석될 때 첨삭문의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규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V. 결론

이상의 논의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자 첨삭문의 텍스트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대학 글쓰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첨삭 지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한계를 확인하는 한편,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제공된 학술적 에세이에 대한 교수자 2인의 첨삭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첨삭문의 텍스트로서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첨삭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첨삭의 방법론과 내용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비대면 상황의 수업이 확대되고 또 교수자가 제공하는 첨삭문이 전달력 높은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면서, 첨삭과 첨삭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Eggins가 제시한 체계기능문법의 틀을 토대로 첨삭문이 텍스트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특히 맥락적 속성인 장르적 일관성과 레지스터(register)의 일관성을 충족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첨삭문이 하나의 장르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첨삭문의 도식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이러한 도식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두 교수자의 첨삭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교수자의 첨삭문을 대상으로 도식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여 첨삭문에 나타난 기능적 라벨(functional label)을 확인하였다. 이는 첨삭문의 도식 구조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서로 다른 형식과 내용 구성을 갖는 첨삭문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교수자가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글쓰기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첨삭문에 대한 도식 구조와 언어 형식에 대한 연구는 글쓰기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함의를 담고 있다. 따라서 교수자의 첨삭문을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을 쌓아 나간다면 첨삭문이 하나의 장르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고, 내용적, 형식적으로 체계화된 첨삭문을 구성하여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제임스 크로스화이트, 오형엽 역, 『이성의 수사학-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논문〉

김경화, 「중등 국어 교사의 학생 글 논평에 대한 인식과 논평 양상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4.

김광미, 「대학생 학술적 글쓰기 첨삭 지도 연구-대화자로서 글쓰기 지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5.

김상희, 「논증적 글쓰기의 수사학적 접근-에토스와 파토스의 표현 기술을 중심으로」, 『수사학』 제14집, 한국수사학회, 2011, pp.27-59. UCI : G704-002025,2011..14.002

김정자, 「학생의 글에 대한 교사 반응 사례 연구」, 『작문연구』 제26집, 한국작문학회, 2015, pp.143-176. UCI : G704-SER000010273,2015..26.006

남진숙, 「글쓰기 첨삭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법」, 『사고와표현』 제6집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3, pp.117-142. UCI(KEPA) : I410-ECN-0101-2015-800-001116104

박상민 · 최선경,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첨삭지도의 실제적 효용 연구-수정 전후 글의 변화 양상 및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16집, 한국작문학회, 2012, 171-197. UCI : G704-SER000010273,2012..16.009

박준범, 「글쓰기 학습자의 첨삭논평 수용 양상에 관한 고찰」, 『교양교육연구』 제8권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pp.271-305. UCI(KEPA) : I410-ECN-0101-2016-370-001293656

_____,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교수자 첨삭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17.

변상출, 「단계별 첨삭지도를 통한 글쓰기의 실제 효율성 강화 방식에 대한 고찰-“글쓰기” 교재를 활용한 첨삭지도의 방안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47집, 한민족문화학회, 2014, pp.369-405. DOI : 10.17329/kcbook.2014.47.47.013

안미애 · 김영철 · 지현배, 「맞춤형 첨삭 매뉴얼을 활용한 표준 글쓰기 클리닉」, 『리터러시연구』 제7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3, pp.241-267.

- 이다운, 「쓰기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강화 및 실제적 문제 개선을 위한 교수자 피드백 방법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64집, 우리어문학회, 2019, pp.359-385. UCI(KEPA) : I410-ECN-0102-2019-700-001666877
- 이은자,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첨삭 피드백-고쳐쓰기 지도 모형」, 『새국어교육』 제8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pp.279-305. DOI : 10.15734/koed.86.201012.279
- 이재기, 「교수 첨삭 담화의 유형과 양상 분석」, 『한민족어문학』 제57집, 한민족어문학회, 2010, pp.557-597. UCI(KEPA) : I410-ECN-0102-2012-810-001797921
- _____, 「교수 첨삭 담화와 교정의 관계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제40집, 국어교육학회, 2011, pp.467-502. DOI : 10.20880/kler.2011..40.467
- 장동석,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의 쓰기와 첨삭 ‘표준 매뉴얼’ 일 고찰-충분대학교 <국어와작문>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제48집, 우리말학회, 2017, pp.165-191. UCI : G704-001207.2017..48.007
- 지현배, 「글쓰기 첨삭지도의 실태와 수강생의 반응 분석-경북대학교 글쓰기 강좌의 경우」, 『리터러시연구』 제2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1, pp.135-163. UCI(KEPA) : I410-ECN-0101-2014-802-001141934
- 지현배 · 김영철, 「첨삭의 표준 문장과 첨삭 조언지 활용 사례」, 『리터러시연구』 제4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2, pp.93-116. UCI(KEPA) : I410-ECN-0101-2014-802-001179545
- 최응환,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첨삭지도」, 『교양교육연구』 제7권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pp.331-364. UCI(KEPA) : I410-ECN-0101-2014-800-003137196

<국의 자료>

- Beaugrande & Dressler,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gman, 1981.
- Eggs,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Continuum, 2011.
- Martin, Language, Register and Genre. In F. Christie (ed.) *Children Writing: A Reader*. Geelong, Vic.: Deakin University Press, 1984, pp.21-29.
- Straub, The student, the text, and the classroom context: A case study of teacher response, *Assessing Writing* Vol.7 No.1, Elsevier, 2000, pp.23-55.

AbstractAnalysis of textual Characteristics and Schematic Structure
of the feedback texts on writings

- Focusing on Comparison of Professor's feedback texts -

Kim, Jeong-nyeo · Yoo, Hye-won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by noting the textual properties of the professor's feedback. To this end, the existing researches on professor's feedback were reviewed to identify limitations, an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eedback texts of two professors for academic essays provided in college writing education we identified the feedback's properties as text.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systematic functional grammar presented by Eggins, we researched whether the feedback texts satisfied the conditions for being text, especially the contextual properties, genre consistency and register consistency. Based on this, for feedback texts to settle down as a genre it was suggested that a study on the schematic structure of the feedback text was necessary a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feedback texts of the two professors as a basic study to establish the schematic structure.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we analyze the features of the schematic structure and identify the functional labels shown in the feedbacks.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laid the foundation for systemizing the schematic structure of the feedback text. In addi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eedback texts with different formats and content compositions we can also identify what the professor is focusing on to train in writing. If the professor's feedback text is recognized as a single text and empirical studies related to it are accumulated in the future, we will be able to establish the systematic

schematic structure contentally and formally. If this is used for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it is expected to help students improve their writing skills.

Key Words : College Writing Education, feedback, feedback text, Genre Schematic Structure, text, Systemic Functional Grammar, Register

주저자

김정녀

소속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전자우편: kjnblue@dankook.ac.kr

교신저자

유혜원

소속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전자우편 : transla@dankook.ac.kr

이 논문은 2021년 5월 22일 투고되어
2021년 6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6월 25일 게재 확정됨.